대화형 생성 모델을 위한 인권 코퍼스 구축

송영숙O, 심상진. 김성현

song@sionic.ai
dyanos@gmail.com, mrbananahuman.kim@gmail.com

Building a human rights corpus for interactive generation models

Youngsook SongO, Sangjin Sim, Seonghyun Kim
Sionic AI, Hanyang University , ShinhanA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인권의 측면에서 AI 모델이 향상된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AI가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검증했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례와 상담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좀 더 나은 답변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기 위해서 인권과 관련된 질의 응답 세트를 만든다. 질의 응답 세트는 인권 코퍼스를 학습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의 생성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또한 생성된 질의 응답 세트를 바탕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전문적인 내용을 담은 문장에 대한 선호도를 분석한다. 본 논문은 대화형 생성 모델이 인권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도 선호되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생성 모델, 모델 발화, 발화의 부적절성, 인권, 인권 코퍼스, 선호도

1. 서론

대규모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생성 모델의 사용 빈도가 늘어나면서 모델의 발화 품질 향상과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다. 사용자들이 어떤 대화는 모델의 발화로 부적절하다고 느끼고 어떤 발화는 더 친근하고 신뢰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가에 대한 연구 역시 필요한 것이다. 부적절 발화와 관련하여 그간의 대화형 생성 모델들은 성별, 종교 등 소위 민감한 질문에 대해 회피형 답변을 제시하거나 입출력을 금지하는 방식을 취해 왔고 지금도 이러한 답변[1]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감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 세트에 대해서 인권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호되는 답변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2]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할 권리이지만 인권이 침해되었는가를 논박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AI의 답변으로 출력될 때에도 내용 면에서는 신뢰성이, 형식 면에서는 전문가적이면서도 친절한 답변이 출력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 의식을 인권 코퍼스를 학습한 모델과 그렇지 않은 모델의 출력을 생성하고 이 출력 세트 중 선호되는 답변은 무엇인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함으로써 답변 선호도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시도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화형 생성 모델을 위한 인권 상담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모색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관련 연구

초기에 욕설 및 사회적 편향을 반영한 발화 등 인공지능의 부적절 발화와 관련된 연구[3]에서는 명시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된 어휘를 찾아내거나 부적절한 발화의 범위(span)을 탐지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즉, 대화형 모델이 발화해서는 안 될 단어 혹은 문장을 필터링하기 위한 것이 주된 연구의 목적이었다. 따라서 이들 연구에서는 영화평, 온라인 상에서 이루어지는 악성 댓글 등을 중심으로 편견, 혐오, 모욕 등의 발언을 탐지하기 위한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여 탐지된 비윤리 표현을 데이터에서 삭제하는 용도로 사용했다.
[1][2][3][5][10][14][16][17][19][20]

두 번째로는 명시적인 표현 뿐만 아니라 암시적으로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는 대화 유형을 설정한 연구들이다. 이 시기의 연구들은 단순히 필터링만을 위한 연구가 아닌 언어 폭력이 될 수 있는 상황이나 불편한 질문들에 대해서도 생성 모델이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대화를 진행할

[1] 회피형 답변은 비윤리적인 범주에 대해 생성 모델이 답변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답을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지하는 방식의 답변 중에는 다음 링크의 예시처럼 운용 정책과 어긋나는 질문이라는 답변을 하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https://go.microsoft.com/fwlink/?linkid=2198766

[2] 구축한 인권 코퍼스는 다음 깃허브 링크에 공개하였다. https://github.com/human-rights-corpus/HRC

[3] 본 연구에서 논의하는 부적절성 발화의 범주는 인종, 직업, 정치 성향, 종교, 연령, 성별 등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적 발화, 외설적 표현, 모욕감을 주는 혐오 표현, 폭력적 대화 등을 말한다.

수 있는가를 탐구하였다. 따라서 이들 연구의 공통적 특징은 특정 발화에서 욕설이나 혐오 표현을 감지할 수 없더라도 그것이 청자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면 부적절한 발화로 주석해야 함을 강조했다.[8][9].
최근에는 생성 모델에게 질문했을 때 윤리적으로 가치 있는 답변을 제시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을 고민하는 연구들이 등장하고 있다.[6][7] 특히 Hwaran Lee외(2023)[6]에서는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 (NHRCK)를 범주 구분의 근간으로 했고 대규모 언어 모델을 사용해서 가치 있는 질문과 응답에 대해 고민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문제의식과 일맥상통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아직 윤리적 측면에서 민감한 질문이라는 일반 도메인의 질의 응답에 측면에서 질의 응답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 연구에서와 같이 범주 설정이나 필터링을 위해 인권 코퍼스를 구축한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전문 도메인에 가까운 인권 위원회의 문서를 대상으로 질의 응답쌍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어떤 질의 응답이 사용자에게 선호되는 답변인지를 설문을 통해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AI가 인권의 문제를 고민하는 전문가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용자 사이에서 어느 정도로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고민하고 검증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3. 인권 코퍼스 구축

본 연구에서 구축한 인권 코퍼스의 원천 데이터는 국가인권위원회[4]의 상담 사례와 결정례이다. 실사례 를 참조하여 인권 코퍼스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인권이라는 추상적인 문제를 나이와 성별, 종교, 학력,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고용 차별 등으로 다양화해서 구축할 수 있었다. 인격 침해와 같은 경우도 군대, 교도소 또는 직장이나 학교에서 일어나는 인격 침해 등으로 실사례를 반영하였다.

참고한 상담 사례는 총 149건이고 결정례 3,948건이다. 총 4,097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중복되는 질문은 제거하고 지나치게 긴 문장들은 생성 모델의 질문과 답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재생성하는 과정을 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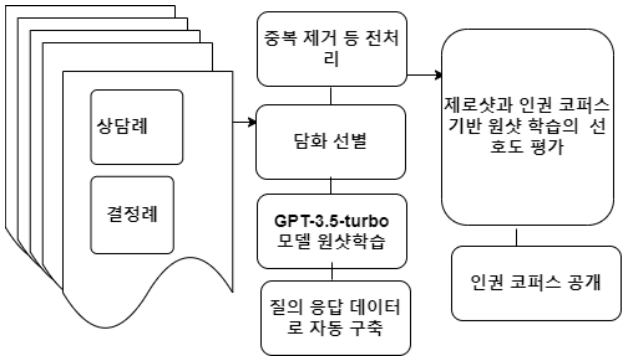

그림1. 인권 코퍼스 구축 개념도

인권위원 홈페이지에는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등을 제외한 상담례와 결정례를 공개되어 있다. 그 중에서 진정인의 진정 내용으로 모델에게 질문할 수 있는 내용을 선정하였다. 또한 진정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답변한 것은 주문 항목에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모델이 답변해야 할 학습 데이터로 사용하였다. 질의 응답 데이터로 인권 코퍼스를 구축하기 위해 GPT-3.5-turbo 모델을 이용하여 진정 내용을 질문으로 인권위원회의 결정 내용 또는 상담 내용을 답변으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쳤다. 문체 변경과 질의 응답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전후 맥락을 고려한 예시문을 만들고 원샷 학습 후 문답을 생성하도록 하였다. 제시한 내용의 일부 예시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예시의 전문은 부록에 수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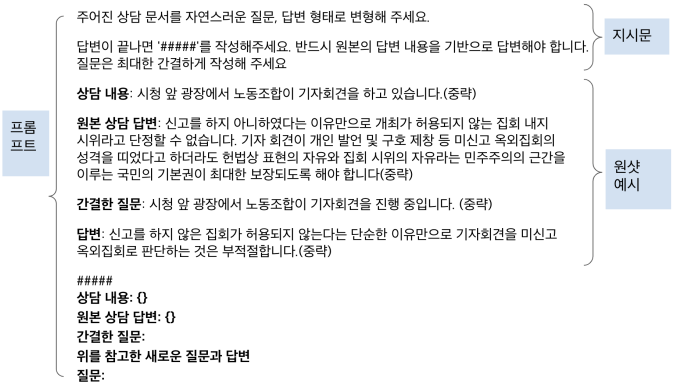

그림2. 인권 코퍼스 구축을 위한 프롬프트 예시

프롬프트에는 지시문과 원샷 예시를 통해 상담 내용과 답변을 간결하게 질문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인권 코퍼스를 학습한 모델을 통한 질의 응답 데이터를 구축한 후 답변 비교를 위해 인권 코퍼스를 학습하지 않고 대답한 답변 세트도 1대 1 대응이 되도록 생성하였다.

3.2. 데이터 구성

인권 코퍼스를 구축한 후 실제 데이터의 주제 다양성을 반영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담 사례와 결정례의 '타이틀' 항목을 대상으로 고빈도 명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확인하였다.[5]

[4] 국가인권위원회의 저작권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제1유형이다. 웹페이지 URL은 다음과 같다.
https://case.humanrights.go.kr/dici/diciList.do

[5] 형태소 분석기는 바른 형태소 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이 형태소 분석기의 초기 버전은 박진호(2019)[3]에서 공개한 것으로 F1 스코어 98.0% 정도의 성능인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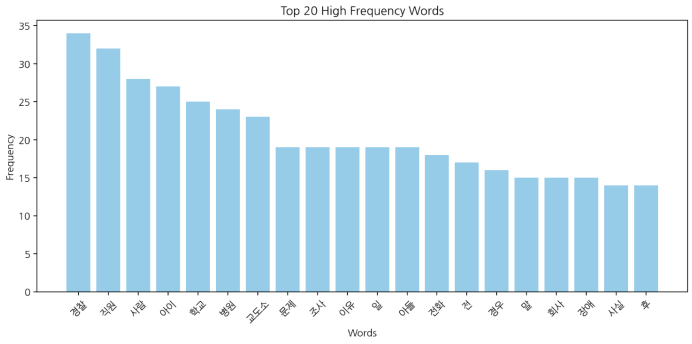

그림3. 국가인권위원회 '상담 사례' '타이틀' 항목에 등장하는 고빈도 명사

위의 <그림3>을 통해 상담 사례에는 '경찰' 등의 공권력이나 '직원', '사람', '학교' '병원', '교도소' 등의 시설에서 발행할 수 있는 인권 침해의 문제가 고빈도 단어로 등장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아래 <그림 4>를 통해 결정례에서는 '차별', '인권', '침해' 등이 최고빈도 단어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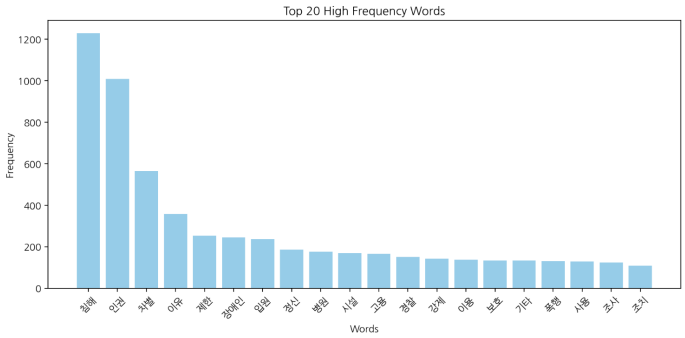

그림4. 국가인권위원회 '결정례' '타이틀' 항목에 등장하는 고빈도 명사

위에 주어진 명사 외에도 성희롱 63번, 장애 57번, 학생 54번 수용자 53번 등이 고빈도 어휘로 등장했다. 고빈도 어휘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이 차별을 받고 있거나 인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국가인권위원회에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4.설문을 통한 답변 선호도 검증

4.1. 정량적 검증

정량적 검증을 위해 세 사람에게 동일한 40문항을 설문으로 제시하여 인권 코퍼스 학습한 후에 생성한 문장과 GPT-3.5-turbo 모델이 생성한 문장을 비교할 수 있도록 설문을 작성하여 선호도를 검증하였다. 인권 코퍼스를 학습한 모델의 답변을 A, 학습하지 않은 모델의 답변을 B라고 하고 설문에 응한 사람을 각각, 1, 2, 3이라고 할 때 답변 선호도는 다음 표와 같다. 설문에 참석한 사람은 20~30대의 직장인으로 총 설문 문항은 40 문항에 대해 선호하는 문장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표1. 선호도 설문 결과표

	1	2	3	평균
A	29 (72.5%)	25 (62.5%)	27 (67.5%)	27 (67.5%)
B	11 (27.5%)	15 (37.5%)	13 (32.5)	13 (32.5%)

설문 결과를 통해 세 사람 모두 인권 코퍼스를 학습한 후 생성한 문장에 대한 선호도가 다소 높았다. 이를 통해서 인권코퍼스와 같이 전문 문서 기반의 답변이 선호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세 사람 모두 같은 문항에 대해 선호도를 보이는지 확인했다. 즉 인권 코퍼스 기반 답변의 구체적인 문항에 대해서 일관되게 특정 문항을 선호하거나 기피하는 반응을 보이지는 확인하였다. 문항 유형에 대한 선호도 측정을 위해서는 3명 간의 일치도(Inter annotator agreement)를 계산하여 그 유효성을 검증했다[6] 평가 결과 Fleiss' Kappa 값은 0.126 이었다.

표2. Kappa 통계의 일치도

카파 통계 Kappa Statistic	일치도 (Strength of Agreement)
< 0.00	거의 일치하지 않음(Poor)
0.00-0.20	**약간 일치(Slight)**
0.21-0.40	어느 정도 일치(Fair)
0.41-0.60	중간 정도의 일치(Moderate)
0.61-0.80	상당한 일치(Substantial)
0.81-1.00	매우 일치(Almost Perfect)

Landis 외(1977)[11]에서는 Fleiss' Kappa = 0.20까지를 약간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세 사람이 특정 유형에 대해 선호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인권 코퍼스의 답변을 선호했다고 할 수 있다.

4.2. 정성적 검증

특정 문항을 더 선호하는 경우 그 이유를 적어달라는

[6] 일치도 평가를 위한 코드는 다음 링크의 오픈 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였다: https://github.com/Shamya/FleissKappa

항목을 설정하여 정성적 선호도를 조사하였는데 다음 문항에 대해서는 3사람 모두 인권 코퍼스를 학습한 후에 GPT-3.5-turbo 모델의 답변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1) 상담 내용 : 영화 <○>에서 동성 애인 간의 키스 장면을 삭제한 것은 차별적인 행위이며, 이와 같은 차별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요?

표2. 상담 내용에 대한 답변 비교

인권 코퍼스 답변	영화 <○>에서 동성 애인 간의 키스 장면을 삭제하고, 이성 간의 키스 장면은 그대로 방영한 것은 동성애 등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별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시정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차별 금지와 다양성 존중을 강조하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이를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차별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및 제재를 강화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유치인의 건강 유지 및 의료 처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GPT-3.5-turbo 답변	영화 <○>에서 동성 애인 간의 키스 장면을 삭제한 것은 차별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차별 행위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위의 예시에서 인권 코퍼스의 답변을 선호한 이유는 문장 구성 측면에서 주장과 근거를 구분하고 알기 쉽게 쓰여진 답변이기 때문인 것으로 답했다. 이 답변을 통해 전문 분야 코퍼스가 취해야 할 방향성의 일면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면서도 형식적인 측면과 용어 등에서 이해하기 쉬운 답변들이 인권 코퍼스와 같이 특정 영역의 답변 향상을 위해 주로 고려해야 할 측면이 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상담례와 결정례를 중심으로 대화형 생성 모델의 응답으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구체화한 후 이를 바탕으로 생성 모델의 답변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와 같이 국가 데이터가 공개되는 경우 AI의 답변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도메인 다양성을 고려하여 본다면 여전히 본 연구에서의 범위는 좁은 범주에 국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추후에 전문 영역의 대화를 세부 범주화하고 추가 분석을 통해 답변 선호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다면 전문 영역의 답변 선호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인권 코퍼스는 법률 AI라는 전문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만큼 전문가들과의 협업에 요청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총기 사용 방법 알려줘'와 같이 민감한 질문 전반에 대한 한국어 데이터 세트를 구축하고 전문가들과 협업 및 분석을 통해 생성 모델 전반에 걸친 답변 향상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박미은, 정유남, 2022, AI 말뭉치 기반 비윤리적 어휘 연구, 한국어학회, 95(-), 241-276 .

[2] 송영숙, 정유남, 2022, 국어사전 용례의 윤리성 자동 분류 문제와 제안. 언어와 정보 26.2, 109-127.

[3] 박진호. 2019, 딥러닝 기반 자연어 처리에서 도메인 지식의 역할, 인공지능인문학연구, 4, 134-166.

[4] Emily Sheng, Kai-Wei Chang, Prem Natarajan, and Nanyun Peng. 2021. Societal Biases in Language Generation: Progress and Challenges. In Proceedings of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the 11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ume 1: Long Papers), pages 4275–4293, Onlin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5] Fortuna, Paula and Sérgio Nunes.2018, A Survey on Automatic Detection of Hate Speech in Text, ACM Computing Surveys (CSUR) 51, pages 1 - 30.

[6] Hwaran Lee, Seokhee Hong, Joonsuk Park, Takyoung Kim, Gunhee Kim, and Jung-woo Ha. 2023. KoSBI: A Dataset for Mitigating Social Bias Risks Towards Safer Large Language Model Applications. In Proceedings of the 61st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ume 5: Industry Track), pages 208–224.

[7] Hwaran Lee, Seokhee Hong, Joonsuk Park, Takyoung Kim, Meeyoung Cha, Yejin Choi, Byoungpil Kim, Gunhee Kim, Eun-Ju Lee, Yong Lim, Alice Oh, Sangchul Park, and Jung-Woo Ha. 2023. SQuARe: A Large-Scale Dataset of Sensitive Questions and Acceptable Responses Created through Human-Machine Collaboration. In Proceedings of the 61st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Volume 1: Long Papers), pages 6692–6712.

[8] Irene Solaiman and Christy Dennison. 2021. Process for adapting language models to society (palms) with values-targeted datasets. Advances in Neura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s, 34, pages 5861–5873.

[9] Jean Lee, Taejun Lim, Heejun Lee, Bogeun Jo, Yangsok Kim, Heegeun Yoon, and Soyeon Caren Han. 2022. K-MHaS: A Multi-label Hate Speech Detection Dataset in Korean Online News Comment. In Proceedings of the 2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pages 3530–3538, Gyeongju, Republic of Korea. International Committee on Computational Linguistics, pages. 3530–3538

[10] Jihyung Moon, Won Ik Cho, and Junbum Lee. 2020.BEEP! Korean corpus of online news comments for toxic speech detection. pages 25–31.

[11] Jing Xu, Da Ju, Margaret Li, Y-Lan Boureau, Jason, Weston, and Emily Dinan. 2021. Bot-adversarial dialogue for safe conversational agents. In Proceedings of the 2021 Conference of the North American Chapter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Human Language Technologies, pages 2950–2968.
[12] Landis, J. Richard, Gary G. Koch(1977), “The Measurement of Observer Agreement for Categorical Data”, Biometrics 33(1), 159.
[13] Maarten Sap, Saadia Gabriel, Lianhui Qin, Dan Jurafsky, Noah A. Smith, and Yejin Choi. 2020. Social Bias Frames: Reasoning about Social and Power Implications of Language. In Proceedings of the 58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pages 5477–5490, Onlin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4] Moin Nadeem, Anna Bethke, and Siva Reddy. 2021. StereoSet: Measuring stereotypical bias in pretrained language models. In Proceedings of the 59th Annual Meeting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nd the 11th International Joint Conference on Natural Language Processing (Volume 1: Long Papers), pages 5356–5371, Onlin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15] Nicholas Lourie, Ronan Le Bras, and Yejin Choi. 2021. Scruples: A corpus of community ethical judgments on 32,000 real-life anecdotes. In Proceedings of the AAAI Conference on Artificial Intelligence, volume 35, pages 13470–13479.
[16] Sara Rosenthal, Pepa Atanasova, Georgi Karadzhov, Marcos Zampieri, and Preslav Nakov. 2021. SOLID: A largescale semi-supervised dataset for offensive language identification, Fin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ACL-IJCNLP 2021, pages 915–928.
[17] TaeYoung Kang, Eunrang Kwon, Junbum Lee, Youngeun Nam, Junmo Song, JeongKyu Suh, 2022, Korean Online Hate Speech Dataset for Multilabel Classification: How Can Social Science Improve Dataset on Hate Speech?, arXiv arXiv:2204.03262.
[18] Yang, Kichang and Jang, Wonjun and Cho, Won Ik. 2022, APEACH: Attacking pejorative expressions with analysis on crowd-generated hate speech evaluation datasets," in Findings of ACL: EMNLP, pages. 7076–7086.
[19] Younghoon Jeong, Juhyun Oh, Jaimeen Ahn, Jongwon Lee, Jihyung Mon, Sungjoon Park, and Alice Oh. 2022. Kold: Korean offensive language dataset. arXiv preprint arXiv:2205.11315
[20] Zeerak Waseem and Dirk Hovy. 2016. Hateful Symbols or Hateful People? Predictive Features for Hate Speech Detection on Twitter. In Proceedings of the NAACL Student Research Workshop, pages 88–93, San Diego, California. Association for Computational Linguistics.

<부록>

GPT-3.5-turbo 모델을 이용한 프롬프트 예시

[상담례 prompt]
주어진 상담 문서를 자연스러운 질문, 답변 형태로 변형해 주세요.
답변이 끝나면 '#####'를 작성해 주세요.
반드시 원본의 답변 내용을 기반으로 답변해야 합니다.
질문은 최대한 간결하게 작성해 주세요.

#####
상담 내용: 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 세 개 중대가 기자회견장을 에워싸고 집회를 해산하라는 방송을 계속 내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으며 설령 집회라 하더라도 평화적으로 하는 집회에 대해 해산 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본 상담 답변: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개최가 허용되지 않는 집회 내지 시위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자회견이 개인 발언 및 구호 제창 등 미신고 옥외집회의 성격을 띠었다고 하더라도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참고로 대법원(2012도9776)은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하려면 집회로 인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 명백하게 초래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 다만, 기자회견이라는 이름으로 개최되고, 일부 기자회견의 성격이 가미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회로서의 성격을 부인할 수 없다면 신고의 의무까지 면제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간결한 질문: 시청 앞 광장에서 노동조합이 기자회견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기자회견장을 둘러싸고 해산하라는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해산 명령은 정당한 것인가요?
답변: 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단순한 이유만으로 기자회견을 미신고 옥외집회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기자회견도 표현의 자유와 집회 시위의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므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례(2012도9776)에 따르면, "기자회견이 집회에 해당한다 해도, 그 집회로 인해 다른 사람의 법적 이익이나 공공 안녕질서에 대한 명백한 위험이 발생해야 해산명령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기자회견이 집회의 성격을 함께 갖는 경우 신고 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아닙니다.
#####
상담 내용: {}
원본 상담 답변: {}

간결한 질문:

[결정례 prompt]
주어진 요청, 근거, 결론을 참고하여, 새로운 법률 관련 질문과 답변을 만들어주세요.
답변은 500자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반드시 주어진 자료의 사실을 활용해야 합니다.
답변 끝나면, '*****' 를 작성해주세요.

*****
요청:
진정인은 사회복무요원으로 피진정기관에서 업무 보조 및 폐의약품 수거 일을 하였다. 2021. 7. 26.폐의약품 수거를

위해 진정인의 자전거를 타고 인도 위를 지나다 뛰어오던 행인을 치는 교통사고를 내어 벌금형40만을 선고받았다.교통사고 피해자는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1,30만원가량의 국가배상 청구를 신청한 상태이며,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중과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다.진정인이 인도에서 자전거를 운행한 것은 잘못이지만, 공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회복무요원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부당하다. 피진정기관이 진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도와주기 바란다.

근거:
1. 진정인이 자전거로 인도를 횡단하는 등 중과실 책임이 있긴 하나, 사전에 피진정인이 복무관리기관의 장으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다면 진정인이 교통사고에 이르지 않았을 수 있고,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이 벌금을 비롯해 고액의 손해배상 부담을 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을 것임. 2. 사회복무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고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되어 공익목적 업무 수행 차원에서 사회서비스 및 행정업무에 복무하고 있는 자이고, 「병역법」 제31조에서도 사회복무요원의 직무상 행위를 공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회복무요원을 공무원 등과 달리 대우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 따라서 법적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함. 3. 진정 취지가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요청이므로, 이는 헌법상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결론:
주문 1 : 1. 광명시장에게, 안전사고 위험이 큰 분야에 소속 사회복무요원을 가급적 배치하지 않도록 하고, 배치가 불가피할 때에는 사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2 : 2. 병무청장에게,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련 사고 발생 시 초기단계부터 지원하고 민형사상 부담을 최소화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의견을 표명합니다. 주문 3 : 3. 이 사건 진정은 각하합니다.

위를 참고한 새로운 질문과 답변
질문: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답변: 사회복무요원이 공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구상권 여부는 법적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병역법 제31조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의 직무를 공무수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과실 책임이 있더라도 사전에 안전 조치를 취하거나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피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요청:
{}

근거:
{}
결론:
{}

위를 참고한 새로운 질문과 답변
질문: